

教授의 權威와 대학에서의 人間教育

오늘의 大學은 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이와 같은 당돌한 물음은 대학 밖의 사람들이 때때로 던지는 울분성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물음은 우리 대학인들이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는 물론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교수하여 사회에 奉仕하는 일이 대학의 사명이라는 점을 몰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정되어 마땅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대학의 사명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또한 고귀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대학이 무엇하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형식을 바꾼다면, 오늘의 大學教育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로 대치해도 좋을 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함으로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대학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몫이다. 이러한 所任은 현재 만족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대학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價値나 道徳에 관한 교육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 가장 하찮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지금 대학에는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교수들의 總力量이 심히 부족하다. 특히 학생들은 知的 호기심과 社會的 관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理性보다는 感情에 바탕을 둔 집단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감당해야 하는 부담만 많고 억누르는 짐을 해소할 길이 흰히 트이지 않는 오늘의 교수들에게 학문적 지도 외에 인간적 지도를 기대하기란 심히 至難한 일이 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 또한 필요할 때에만 교수들의 諮問이나 협조를 구할 뿐 교수들에게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조차 않는 현실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이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고 기술이나 직업교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양 높은 指導的 人間을 배출하는 데 인색해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것은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향상이 아닌 퇴보, 더 나아가 필연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를 야기하고 말 것이다. 오늘의 대학과 대학교수는 이 점을 명심하여 전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人間性·道徳性과 관련된 보편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도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이 이러한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 책임자인 總·學長은 특별하고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학장은 知識共同體이며 知性集團인 대학의 책임자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하는 소임을 맡은 한 기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학문의 연구나 지식의 전수에 힘을 쏟기보다는 대학발전 長期 構想을 가지고 대학의 사명과 역할 및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것의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自律性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韓國航空大學長 李 亨 宰

교수는 大學共同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문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은 누구나 익히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는 間斷없이 계속되는 挑戰과 쫓겨 해결되지 않는 複合的 問題 속에서 나날을 고심하고 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교수라는 직업에서 강도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과중한 강의부담, 연구시설과 연구비의 부족, 경제적인 곤란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이들 교수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키 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수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또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제약 조건 아래에서도 우리의 교수들은 스스로의 立場에 대한 처방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대학교수들은 全人的 人間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에서의 전인적 능력,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문분야에서의 學問的 優越性을 확보하는 일이며, 둘째는 전문분야 외에서도 풍부한 文化的 教養과 知識을 함양하여야 하는 일이고, 셋째는 道德的 嚴正함과 人格的 氣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는 교수는 한낱 직업인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젊은이의 스승으로서 師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교수는 학문적 자질과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수는 학문이나 기능을 전수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까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교육이란 본디 스승의 인격적·도덕적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교수가 갖는 德目 중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엄격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분야는 물론, 사회역사적 삶의 문제나 학생들을 이해하는 도량에 있어서까지도 학생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단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교수는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월한 위치에 서야 된다.

教授의 權威는 바로 이러한 태도와 자질 및 모범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다. 말하자면 인품의 고매성과 지적 우월성, 자기통제라는 규범성의 總量의 卓越함과 함께 指導의 所任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교수의 권위는 서는 것이다. 결국 교수의 권위는 교수 자신의 실천적 자세와 행동양식, 즉 사고와 소양 모두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가져올 수 있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수들의 권위를 세워야 하고, 교수들이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은 제반의 제도적 장치,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교수의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총·학장은 이를 위해 東奔西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의 責任과 自救의 努力이 있는 연후에 우리는 교수들 닮고 대학이 무엇하는가를 다시 따져야 마땅하다. ■